

영재들의 자살생각에 관한 구조모형 탐색

진 선 흥

양 태 연

한 기 순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

인천대학교

이 연구는 영재의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를 검증해봄으로써 영재의 정서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자살생각의 위험성에 노출된 영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권의 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 재학중인 중학생 1~3학년 3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과학영재의 자살생각에 대한 최종 모형의 적합도는 $CFI=.972$, $TLI=.966$, $RMSEA=.058$ 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자살생각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 학업스트레스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부적응적 완벽주의에서 우울과 학업스트레스의 경로와 우울에서 자살생각, 학업스트레스에서 자살생각의 경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적응적 완벽주의에서 자살생각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울과 학업스트레스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영재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완벽주의적인 특성을 지닌 영재에게 적절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영재, 부적응적 완벽주의, 우울, 학업스트레스, 자살생각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80년 8월 11일 똑똑하고 재능이 많던 17살 소년 제임스 델러스 에그버트가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다. 그리고 5일 후 숨을 거두었다. 영재였던 아들의 갑작스러운 자살로 인해 망연자실한 델러스의 부모는 자신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영재 부모들의 모임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Webb, Meckstroth, &

교신저자: 한기순(han@incheon.ac.kr)

Tolan, 1994).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 평균 43.6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31.7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OECD 평균 수치인 12.9명을 크게 넘어서 OECD 자살률 1위, 심지어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경향신문, 2012).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영재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올해 들어서만 4명의 KAIST 학생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성취위주의 영재교육시스템이 젊은 영재들을 죽음으로 몰아세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된 정확한 수치는 없으나 Webb(1993)은 영재들의 자살률이 일반학생들의 자살률을 훨씬 웃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최근 연이은 카이스트 학생들의 자살은 영재들의 자살이 이제는 더 이상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영재들의 자살을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

전문가들은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집단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 속에 경험하는 낮은 좌절이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문화일보, 2011). 우수한 두뇌들을 모아 놓은 집단 속에서의 경쟁은 너무나도 치열하다.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 간의 경쟁과 비교 속에서 어떤 영재들은 끊임없이 좌절감과 무기력,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내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건 그동안 알던 내가 아니야' 혹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등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나 부적절한 인식 등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듯 영재들은 어릴 적부터의 거듭되는 성공의 경험과 실패 경험의 부족이나 부재로 인해 실패나 좌절을 맞닥뜨릴 경우 일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심리적 문제와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Silverman, 1993). 새벽까지 과제를 준비하고 공부하며 시험을 보아도 성적이 하위권을 땀만다면 그 이전까지 1등만 해 왔던 아이들의 자괴감 및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부모님의 기대와 주변 사람의 기대, 사회에서 바라는 기대를 저버렸다는 자책감도 매우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학생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시험성적이 떨어져서, 대학입시에 실패해서, 공부하지 않는다고 부모에게 꾸중을 듣고 자살한 학생들의 소식은 뉴스나 대중매체를 통해 있을만하면 전해진다. 특히 동일연령 집단과 비교하여 매우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영재들이 성적 부진을 비관해 자살하는 경우 우리의 경쟁위주, 성취위주의 사회시스템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에 대해 반성과 문제가 제기되지만 동일한 문제와 이슈는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특히 학업스트레스는 자살충동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문경숙, 2006). 영재아들은 일반아들에 비하여 더욱 민감하고 높은 수준의 열망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의 지속적인 경험은 자살을 시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Webb et al., 1994).

영재아동의 정서적 취약성을 강조한 Hollingworth(1975)는 어른의 지능과 어린이의 정서를 함께 갖춘 아이에게는 심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개인의 개성과 소질 보다는 학업성적으로 개인의 우열을 판별하는 교육제도 속에서 감성적으로 보통 아이들보다

예민한 영재들이 겪어야 할 중압감과 고뇌는 더 클 수 있다. 실제로 김정아(2005)의 연구에 따르면 영재아는 일반아에 비해 학업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지적하고 있고, 박소희(2010)의 연구에서도 영재는 여러 스트레스 요인 중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영재가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모든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영재이기에 겪어야 하는 나름의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다. 특히 완벽주의는 영재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다. 완벽주의는 성취를 향한 동기,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도 하지만, 개인능력 이상의 비현실적인 목표와 과다한 시간 및 에너지 소비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 성공여부에 대한 심각한 불안에 빠지게도 한다(Hewitt & Flett, 1993). 또한 영재아들은 자신에게 거는 기대도 크지만 부모, 교사,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이들에게 거는 기대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완벽주의적 특성은 영재아동들로 하여금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과도한 근심과 걱정을 유발하여 심리적 스트레스나 심할 경우 정신적 장애 등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이외숙, 2005). 학자들은 전체 영재아동들 중에 15-20% 정도의 아동은 학업 수행과정 중에서 완벽주의에 의한 스트레스로 심각한 정신적 장애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Webb, 1993), 10대 영재 청소년의 자살(Adderholdt-Elliott, 1987) 및 미성취 영재(Rimm, 1995)의 경우들은 모두 완벽주의와 관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 예로, 영재아는 완벽주의적 특성으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가능성과 동시에 자신의 단점을 인식하게 되는데,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이미지의 달성 가능성을 두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가하는 호된 비판(Adderholdt-Elliott, 1987)은 자신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부각시키고, 이룬 것보다는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갖게 하여 낮은 자아 존중감과 우울증(Webb et al., 1994; Whitmore, 1980)으로 이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로까지 연계된다는 것이다(Adderholt-Elliott, 1987).

물론 여기서 언급되는 완벽주의의 이러한 경향성은 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관련이 깊다. 완벽주의 개념에 대해 최초로 정의를 내린 Harmacheck(1978)이 완벽주의를 정상적(normal) 완벽주의와 신경증적(neurotic) 완벽주의로 구분한 바 있듯이, 연구들은 완벽주의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 둘 다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완벽주의의 다차원적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들이 제작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특히 Frost, Heimberg, Holt, Mattia와 Neubauer(1993)는 다차원적 완벽주의를 요인 분석한 결과 적응적 완벽주의(adaptive perfectionism)와 부적응적 완벽주의(maladaptive perfectionism)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중 실패 회피적이고 평가 염려적인 특성을 가진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비난, 부모의 기대, 행동에 대한 의심차원, 사회적으로 부가된 완벽주의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우울이나 자살생각 등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dkins & Parker, 1996; Hamilton & Schweitzer, 2000). 이는 성취를 지향하는 능동적인 완벽주의자와 달리 실수를 두려워하는 부적응적인 성향을 지닌 완벽주의자가 더 우울하고 자살에 몰두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완벽성이 부적응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쉽게 불안하거나 우울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살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유상미, 2008), 부적응적인 완

벽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영재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관련하여 청소년의 자살행동이나 생각을 다루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우울을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우채영, 박아청, 정현희, 2010; 이은숙, 2002; 정영주, 정영숙, 2007), 영재들의 경우 주변의 부러움과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라면서 스스로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오다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경쟁과 긴장, 그리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실패를 통해서 정서적인 불안과 우울을 유발할 수 있다(Webb et al., 1994)고 한다.

이렇듯 영재의 특성인 완벽주의가 부적응적으로 작용할 경우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낮은 자존감과 우울을 경험하기 쉽다. 또한 그들이 지닌 민감성과 높은 수준의 열망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특히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고민은 영재들의 자살생각이나 시도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재들의 자살생각, 관련된 예측 요인들, 요인들 간의 관련성 및 경로에 관한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자살생각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일반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박병금, 2006; 윤경란, 2006; 이진오, 2008; 장은선, 2006), 영재를 대상으로 한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 실제적 측면에서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재들의 자살생각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우울, 학업스트레스 변인들을 중심으로 영재의 자살생각에 대한 모형을 검증하고 그 경로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영재들의 자살이슈를 화두로 제시하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영재들의 사회·정서적 지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결과 영재들의 자살생각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우울, 학업스트레스 변인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 학업스트레스, 자살생각과의 관계

Burns(1980)는 완벽주의 성향을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이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쓰며, 인간의 가치를 생산성과 업적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야만 한다는 욕구로 인해 쉽게 패배감을 느끼는 성격적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영재는 선천적인 이유나 경험적인 학습결과로 인하여 일반아동에 비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고 이러한 완벽주의적 성향이 학습에 대한 강한동기로 작용하여 일반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반면 지나친 완벽주의는 우울 및 자살시도 등의 병리적 증상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윤초희, 윤여홍, 김홍원, 2004). Hewitt, Flett, Turnbull-Donovan과 Mikail(1991)은 완벽주의와 스트레스, 우울간의 높은 상관을 주장하면서 이는 완벽주의자들이 스트레스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이 겪는 정서적 특징 중 대표적인 것이 우울이다. 완벽주의자들은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도 실패로 느끼고, 수행 결과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울에 특히 취약하다(Burns, 1980). 또한 Hewitt과 Dyck(1986)은 완벽주의와 우울,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완벽주의자들은 스트레스와 우울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반해 비완벽주의자들은 매우 낮은 상관을 보이거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칭찬과 성공경험 등이 영재의 완벽주의를 강화시키는데 이러한 완벽주의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능력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박혜진, 2001). 또한 최정입(199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완벽주의적인 특성이 부적응적으로 작용할 때 높은 학업성취도를 얻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기대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감과 부담으로 인해 학업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해질 경우 자살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영재의 특성 중 하나인 완벽주의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실패감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다(Hayes & Sloat, 1990). 부적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 하위적도는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있는데 Hewitt과 Flett(1991)의 다차원적인 완벽주의 척도에서 실패 회피적이고 수동적인 특징을 가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자살생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Beevers와 Miller(2004)는 완벽주의, 인지적 편파, 절망감을 측정하고 6개월 뒤에 자살생각에 관해 경로분석을 하였는데 높은 완벽주의가 자살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약 30%가 자살을 했다는 Klerman(1987)의 조사 연구 결과는 단일 요인으로는 우울증이 자살을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의 자살 생각을 비교·연구한 박병금과 노필순(2007)은 우울집단이 비우울집단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 충동성,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회귀 분석한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1991)의 연구결과에서는 자살생각은 주로 우울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의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과도한 자기 비판(Excessive self-criticism)이다. 과도한 자기비판은 이상적 자아와 실질적 자아 사이의 불일치를 유발하며 이는 곧 자신에 대한 분노와 실망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개인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증을 앓게 되며(Webb et al., 1994; Whitmore, 1980) 자기비판과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Addeholdt-Elliott, 1987).

Weisse(1990)는 우울은 빈번하게 영재에게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IQ 160을 가진 영재들은 어디에서도 적응하기 힘들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들을 견뎌내야만 한다. 창의적인 영재는 청소년기, 또는 그 이전의 고립감의 경험으로 인해 우울에 취약하며, 부모와 또래의 기대, 진로에 대한 고민 등과 같은 문제와 겹쳐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창의적인 영재 24명 중 16명이 자살에 관해 생각해 보았고 자살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으며 16명 중 8명은 자살을 시도해 보았다고 한다(Willings & Arseneault, 1986).

Baker(199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도영재와 영재, 일반아는 우울 수준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12%의 고도 영재와 8%의 영재, 9%의 일반아는 우울 수준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몇몇의 영재 청소년이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 우울과 같은 경고성 징후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3.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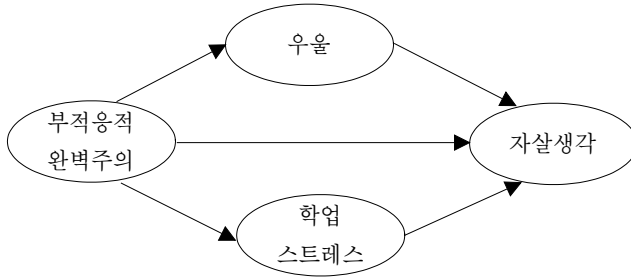
정철순, 임숙빈, 고효진(2001)은 자살생각을 경험한 청소년이 가장 많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원이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라고 보고한 바 있다. 자신이 학업에 실패했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한 청소년보다 3배 이상의 자살생각을 보이고 10배 이상의 자살시도를 보인다(Richardson et al., 2005). 중학생의 자살생각과 공격성 및 귀인성향의 관계를 분석한 이병환과 김경수(200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학생이 자살충동을 느끼는 여러 가지 이유 중 남학생은 1위로 성적하락을, 여학생은 부모님의 불화 다음으로 공부에 대한 부담감과 성적하락을 꼽았다. 학업에 대한 압박감은 청소년기의 충동성과 결합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

Rubin 외(1992)는 청소년에게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은 우울증과 스트레스이며 특히 성적의 저하는 우울 및 자살의 예측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만 부적응을 겪는 것은 아니다. 학업성취도가 뛰어난 영재들도 부적응을 겪을 수 있다. Clarizio(1994)는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생각하는 청소년은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생각에 몰두하게 되고 그 결과 다른 흥미를 갖는 동료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자신이 도달하기에 불가능하다는 실패를 경험하여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재 청소년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각한 정서 장애를 겪거나, 심한 경우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는 등의 사건 사고가 사회에 알려지면서 영재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즉, 모든 영재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재에 대한 정서적 이해와 심리적 상담이 필요하다. 영재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도와주어 학교 및 사회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진혜, 2011).

이상의 이론적 탐색을 통하여 부적응적 완벽주의, 우울, 학업스트레스가 영재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관계구조를 바탕으로 다음 <표 1>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표 1> 연구 가설

연구 가설	내 용
가설 1.	영재의 자살생각 구조모형은 수용될 것이다.
가설 2.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우울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학업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A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 선발되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과학 분야의 교육을 받고 있는 남·녀 중학생 320명이다. A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재학 중인 이들은 교육청 추천, 학교장 추천, 교육원 추천전형을 통해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선발된 학생들이다. 연구 대상을 특성에 따라 분류한 자료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연구 대상

(N=320)

특성	유형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22	69.4
	여	98	30.6
학년	중학교 1학년	112	35.0
	중학교 2학년	169	52.8
	중학교 3학년	39	12.2

2. 검사 도구

가. 부적응적 완벽주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중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실패 회피적이고 평가 염려적인 특성을 가진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특성으로 밝혀진 하위척도를 선별하여 측정하였다. 실수에 대한 염려, 행위에 대한 의심척도는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1990)가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현진원(1992)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3문항이고 실수에 대한 염려 하위 요인 9문항과 수행에 대한 의심 하위 요인 4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이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척도는 Hewitt과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한

기연(1993)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Likert식 7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Likert식 7점 척도를 Likert식 5점 척도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적응적 완벽주의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93$ (실수에 대한 염려 .89, 수행에 대한 의심 .73,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90)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척도는 오미향(1993)이 제작한 검사를 박혜정(2009)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8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업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97$ (성적 .86, 시험 .88, 수업 .84, 공부 .88, 진로 .88)로 높게 나타났다.

다. 우울

Beck의 우울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를 Kovacs가 아동과 청소년 연령에 적절하게 수정한 소아 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사용하였다. 한국에서는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변안하였으며 총 27문항으로 되어 있다. CDI는 우울증상의 심한 정도를 기술하는 3문장 중 응답자의 경험에 가장 적합한 한 문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각 문장은 0점에서 2점으로 채점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척도는 우울정서 5문항, 행동장애 7문항, 흥미상실 7문항, 자기비하 4문항, 생리적 증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2(우울정서 .73, 행동장애 .72, 흥미상실 .80, 자기비하 .63, 생리적 증상 .65)로 나타났다.

라. 자살생각

자살생각척도는 Reynold(1988)가 자살에 관한 청소년의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SIQ(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를 신민섭(1993)이 변안한 것을 수정·변형하여 사용하였다. SIQ는 총 30문항이고,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살생각 측정과 관련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살생각 및 시도에 관한 질문을 최소한의 적은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는데(박재연, 정익중, 2010; 송인한, 권세원, 정은혜, 2011; 최인재, 2010) 특히, 영재아의 경우 일반아에 비하여 자기자신뿐만 아니라 일상적 사건에 더욱더 예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ebb et al., 1994). 이와 같은 이유로 영재교육 전문가 2인과 논의하여 SIQ 30문항 중 영재의 정서적 민감성을 자극할만한 극단적이고 민감한 문항을 모두 제외하고 4문항을 선별하였으며 조금 더 순화시켜 표현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생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계수는 .92였다.

3. 자료 처리

자료 분석을 위해 SPSS18.0과 AMOS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각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수집된 자료가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알아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다. 둘째,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구하였고, 각 잠재변인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표준화 경로계수의 C.R(Critical Ratio)을 통해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판단하였으며,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을 구하였다. 또한 제안된 연구모형과 자료간의 부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χ^2 검증을 실시하고 표본 크기에 영향을 덜 받는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를 함께 이용하여 모형을 평가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은 CFI, TLI가 .9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하며(홍세희, 2000), RMSEA가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로 판단하였다(Browne & Cudeck, 1993).

IV. 연구 결과

1. 연구변인에 대한 기초통계

가. 관측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수들의 정규 분포성을 검토하였다. 왜도는 절댓값 3을 초과하면 극단적이라 보고, 첨도는 8 또는 10을 초과하면 극단적이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배병렬, 2009), 이 연구의 표본에서는 정상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2.88로 보통이었으며 하위변인 중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평균 2.97로 가장 높았다. 영재들의 학업스트레스는 하위변인들 모두 평균이 2.23~2.69로 평균 이하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우울은 평균이 0.32였고 하위변인들의 평균 또한 비슷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살생각의 평균을 살펴보면 1.72로 나타났다. 낮은 점수이지만 자살이라는 변인의 특성상 점수의 높고 낮음을 떠나 그 심각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5점 만점에 3점 이상의 위험군은 60명(18.8%)으로 나타났고 5점 만점의 응답자는 4명(1.3%)이나 되었다.

<표 3> 관측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치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실수에 대한 염려	2.80	.84	1.00	5.00	.074	-.419
수행에 대한 의심	2.87	.88	1.00	5.00	-.002	-.020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2.97	.86	1.00	5.00	-.146	-.185
전체	2.88	.74	1.00	5.00	-.097	-.048

학업 스트레스	성적	2.49	1.03	1.00	5.00	.239	-.931
	시험	2.69	1.04	1.00	5.00	.357	-.654
	수업	2.29	.93	1.00	5.00	.295	-.800
	공부	2.45	.94	1.00	5.00	.246	-.693
	진로	2.23	1.01	1.00	5.00	.462	-.745
	전체	2.44	.90	1.00	5.00	.266	-.874
우울	우울정서	0.31	.36	0.00	1.80	1.576	2.681
	행동장애	0.33	.32	0.00	1.86	1.336	2.690
	흥미상실	0.30	.34	0.00	1.71	1.371	1.852
	자기비하	0.33	.37	0.00	1.75	1.458	2.182
	생리적증상	0.35	.39	0.00	2.00	1.394	2.277
	전체	0.32	.30	0.00	1.81	1.646	4.136
자살 생각	자살생각	1.72	.96	1.00	5.00	1.340	1.088

나. 주요변인의 상관계수

다음으로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잠재변인들의 상관계수는 .380~.594 사이로 분포되어 있고 유의확률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과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은 우울($r = .572$)이었다.

<표 4>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측정변수	1	2	3	4
1. 부적응적 완벽주의	1			
2. 학업스트레스	.594**	1		
3. 우울	.462**	.380**	1	
4. 자살생각	.430**	.389**	.572**	1

** $p < .01$

2. 측정모형의 검증

가. 적합도 평가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변인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를 보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333.658 (df = 113, p = .00)$, $CFI = .949$, $TLI = .938$, $RMSEA = .078$ (90% 신뢰구간 .069~.088)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는 수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표본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타당도

<표 5>에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관측변인과 잠재변인간의

요인부하량을 확인하고 요인부하량의 유의성 판단을 위해 *C.R* 값을 확인하였는데, 표준화 계수가 .5이상이고, *C.R*의 절댓값이 1.96이상이면 유의수준 5%에서, 절댓값이 2.56이상이면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분석 결과, *C.R* 값은 모두 2.56이상으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각 관측변인들은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념 신뢰도 값은 .7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분산추출값은 .5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와 타당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S.E</i>	<i>C.R</i>	개념 신뢰도	평균 분산추출
부적응적 완벽주의	→ 실수에 대한 염려	1.150	.842	.089	12.970***		
	→ 수행에 대한 의심	1.081	.758	.089	12.121***	.86	.67
	→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1.000	.717				
학업 스트레스	→ 성적	1.037	.891	.046	22.364***		
	→ 시험	1.033	.878	.048	21.726***		
	→ 수업	.901	.852	.044	20.487***	.95	.78
	→ 공부	.969	.907	.042	23.211***		
	→ 진로	1.000	.868				
우울	→ 우울정서	1.092	.838	.079	13.826***		
	→ 행동장애	.996	.861	.070	14.149***		
	→ 흥미상실	.989	.810	.074	13.397***	.99	.93
	→ 자기비하	1.082	.799	.082	13.236***		
	→ 생리적증상	1.000	.698				
자살생각	→ 자살생각1	1.087	.879	.047	22.909***		
	→ 자살생각2	1.056	.910	.043	24.686***		
	→ 자살생각3	1.117	.781	.062	18.147***	.91	.72
	→ 자살생각4	1.000	.899				

*** $p < .001$

3. 가설모형의 검증

가. 가설모형의 적합도 검증

이론적 탐색을 바탕으로 설정한 영재의 자살생각에 관한 가설모형을 검증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적합도 지수는 $CFI=.972$, $TLI=.966$, $RMSEA=.058$ 로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 가설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값	227.183	109	.972	.966	.058 (.048~.069)

나. 가설모형의 경로계수

부적응적 완벽주의, 우울, 학업스트레스, 자살생각 간의 경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이번 연구 모형에서는 총 5개의 경로를 설정하였는데 그 중 <가설 4>를 제외하고는 4개의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 변인을 살펴보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서 우울의 경로계수는 .543, 부적응적 완벽주의에서 학업스트레스의 경로계수는 .687로 가설이 채택되었으나 부적응적 완벽주의에서 자살생각의 경로계수는 .101로 가설이 기각되었다. 우울에서 자살생각의 경로계수는 .467, 학업스트레스에서 자살생각으로의 경로계수는 .193으로 가설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 가설모형의 추정결과 및 가설 검증 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검증 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 우울	.262	.543	.032	8.172***	가설2 채택
부적응적 완벽주의	→ 학업스트레스	.923	.687	.092	10.060***	가설3 채택
부적응적 완벽주의	→ 자살생각	.146	.101	.128	1.145	가설4 기각
우울	→ 자살생각	1.400	.467	.196	7.133***	가설5 채택
학업스트레스	→ 자살생각	.208	.193	.078	2.670**	가설6 채택

** $p < .01$, *** $p < .001$

4. 수정모형의 검증

가. 모형의 수정 및 적합도 검증

가설모형 분석 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에서 자살생각이 유의하지 않은 경로로 나타났다. 이에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자살생각 간의 경로를 제거하여 최종 수정모형을 제시하였으며 검증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자살생각 모형의 수정 전·후의 차이 검증결과

	χ^2	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수정 전 모형	227.183	109	.972	.966	.058 (.048~.069)
수정 후 모형	228.571	110	.972	.966	.058 (.047~.069)

모형을 수정한 결과 $\chi^2 = 228.571(df=110, p=.000)$, CFI 가 .972, TLI 가 .966, $RMSEA$ 가 .058 이었다. <표 8>에 제시된 결과값을 살펴보면 두 모형의 χ^2 차이 값은 1.388이며 자유도의 차이 값은 1로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χ^2 차이 검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부분 매개모형을 선택하고 유의미하지 않으면 완전매개모형을 선택하므로(홍세희, 2001) 본 연구에서는 완전매개모형이 선택되었다. 따라서 우울과 학업스트레스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우울과 학업스트레스를 통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간접 영향은 유의하였다. 영재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우울감을 느끼고 학업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그 정도가 높아지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및 가설검증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우울과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였다. 다음 <표 9>는 수정 모형의 표준화 계수 추정치이다.

<표 9> 수정모형의 표준화 계수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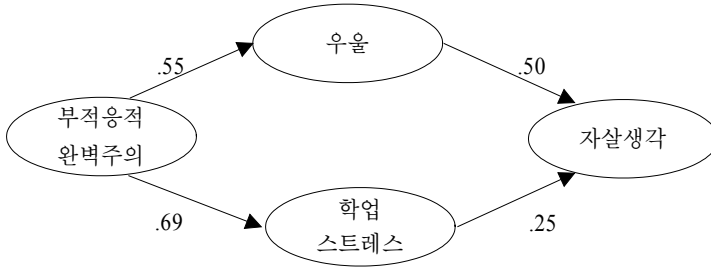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부적응적완벽주의	→ 우울	.264	.546	.032	8.220***
부적응적완벽주의	→ 학업스트레스	.922	.687	.092	10.064***
우울	→ 자살생각	1.499	.501	.175	8.550***
학업스트레스	→ 자살생각	.270	.251	.507	4.708***

*** $p < .001$

과학영재들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우울,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구조에 대한 연구결과, 세 변인 모두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로를 살펴보면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우울하며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우울감과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감이 높게 나타나는 영재들은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격, 유전 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으로 인해 쉽게 우울해지기 쉬운 영재는 그 정도가 심해지면 자살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 역시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데 시험, 수업, 공부, 성적, 진로 등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수정 모형 경로 및 표준화 계수

다. 효과 분석

최종 모형의 분석을 통해 각 경로계수의 값을 파악한 후에는 변수간의 효과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효과의 유의미성은 AMOS프로그램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청소년 자살위기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주요 변인들의 직접·간접 및 총 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우울	.543**		.543**
	학업스트레스	.687**		.687**
	자살생각	.101	.387**	.488**
우울	자살생각	.467**		.467**
학업스트레스	자살생각	.193*		.193*

* $p < .05$, ** $p < .01$

직접 효과가 유의한 경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에서 우울($\beta=.543$), 부적응적 완벽주의에서 학업스트레스($\beta=.687$), 우울에서 자살생각($\beta=.467$), 학업스트레스에서 자살생각($\beta=.193$)으로 나타났으며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에서 자살생각($\beta=.387$)으로 분석되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관계에서 직접효과는 $\beta=.101$, 간접효과는 $\beta=.387$ 로 나타났다는 점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울과 학업스트레스가 완전 매개하는 모형임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영재의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울과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구조적 관계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적응적 완

벽주의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이론적 가설 및 상관분석에서 정적으로 관련된 것과는 상반되게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청소년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우울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울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고 있으며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우울을 경험함으로써 자살생각이 촉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우울의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자살의 위험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연구(Adkins & Parker, 1996; Hewitt & Flett, 1993)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최근 부적응적 완벽주의, 무망, 우울, 심리적 극동 및 자살생각의 관한 연구(최바울 외, 2011)에 의하면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영재들의 우울점수는 2점 만점에 평균 0.32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자신이 영재로 발탁되어 영재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이 영재들로 하여금 학업 및 성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때로는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도록 고의로 숨기기도 하는 영재의 특성상 자살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우울'을 드러내기 부끄럽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드러내기를 꺼리다보니 보통 이하의 점수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영재들의 우울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울감이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라고 보고하고 있으며(Berndt, Kaiser, & Van Aalst, 1982; Kaiser & Berndt, 1985) 실증적인 연구결과들 또한 일반아의 평균, 또는 그 이하의 우울 수준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Baker, 1995; Neihart, 1999). 하지만 고도영재의 경우에는 학문적, 사회적 환경과 비동시적인 발달로 인해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다(Hollingworth, 1942; Jackson & Peterson, 2003). 이번 연구에서 영재들의 우울 수준이 높지 않았지만 내적·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우울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자살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학업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보다($\beta=.251$) 우울이($\beta=.501$)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영재성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와 관련하여 추후 고도영재들을 대상으로 모형과 경로의 적절성을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스트레스,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학업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학업스트레스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높은 영향력을($\beta=.687$)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데 자신이 설정한 비현실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도달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실제로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 이수민, 양난미(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청소년을 대상

으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고 한 모혜연(2000)과 완벽주의 성향은 개인에게 심리적인 고통과 부적응적인 행동양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심혜원(199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지은희(2006)의 연구에서 완벽주의 전체와 스트레스 전체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특히 학업스트레스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온라인 게시물에 나타난 영재들의 고민유형을 분석한 최정웅(2012)의 연구에 따르면 영재들의 생활 장면을 가정, 학교, 영재교육기관, 개인, 외부시험 장면 5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가장 많은 고민이 이루어지는 장면별 순위는 학교(62.8%), 개인(17.9%), 영재교육기관(9.2%), 가정(6.9%), 외부시험(5.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관련 고민으로는 학교 내신 및 수행평가가 63건(48.5%)으로 과반수에 가까운 가장 높은 영역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영재 청소년들이 성적관리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드러냈음을 보여준다. 가정장면 고민에서 학업관련 잔소리 고민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외부시험과 관련해서 개인별로 한해에 평균 5~7개 정도의 대회에 참가하였고 이렇게 많은 시험과 경쟁에 시달리면서 준비하는 과정과 결과에 있어 크고 작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Weisse(1990)는 일반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영재의 자살에 관해서도 그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스트레스와 걱정, 기대 이하의 시험점수, 성적의 하락 등과 같은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혼란이 영재가 자살을 시도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의 자살생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영재를 대상으로 한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 영재의 정신건강 및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영재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완벽주의적인 특성을 지닌 영재들에게 적절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울과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영재의 전형적인 특성이다. 이를 영재 상담과 관련지어보면 자살위기에 처해 있거나 위험성을 보이는 영재를 지도하거나 상담할 경우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울 및 스트레스, 정신적, 심리적인 고통을 다루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나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각 개인의 상황이나 성격적·정서적 특성 등에 따라 우울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인 감수성이 다른 이들보다 더 예민한 영재, 그리고 급격한 신체적·정서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청소년기의 영재는 보다 세심과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을 매개하는 요인임이 규명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보이는 영재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영재를 대상으로 학교 및 기관에서는 자살 예방과 상담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학업스트레스가 심하고, 자살위기에 처한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자살예방 상담을 시행하는 것은 영재의 자살예방과 치료에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영재교육이 발전하려면 영재의 인지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는 확인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교육과정 및 영재 프로그램상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재들의 복잡한 사고 작용, 주위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 진로에 대한 고민 등은 영재들로 하여금 내적 갈등을 하도록 하며 낮은 자아개념,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감을 갖도록 한다. 영재에게 중요한 것은 지적인 자극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영재의 완벽주의적인 특성은 ‘양날의 칼’과 같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완벽주의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갖게 해주지만 부정적이고 병적인 완벽주의는 융통성이 없으며 원리원칙에 엄매이고 강박관념과 충동, 걱정을 유발한다. 영재의 완벽주의가 긍정적인 성향으로 발전할지, 부정적인 성향으로 발전할지는 주변의 환경, 개개인의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영재를 심리적인 적응과 연습 등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나 좌절을 피드백으로 생각하며 결함을 찾는 대신 가능성을 찾고, 자신과 타인에게 가혹하기보다는 관대해지도록 노력하는 긍정적인 완벽주의자 혹은 최적주의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이 연구는 시사한다.

넷째, 청소년 영재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재 중학생은 초등학교에 비해 다양한 집단과 상호작용을 하며 발달 과정상의 특수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환경의 변화, 지식의 양과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관련하여 박혜진(2001)은 영재의 심리적인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평가를 높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영재 청소년의 성숙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주제로 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끝으로, 영재의 자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 SENG(Supporting emotional needs of Gifted Children)과 같은 영재의 정서적인 지원을 위한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영재와 그 가족을 위한 정서 개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영재들의 사회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표면적인 대책들은 제안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영재를 위한 실질적인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대책은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역사는 미국에 비해 훨씬 짧고 처해 있는 환경 또한 다르다. 하지만 영재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고조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재의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지기를 희망한다. 제2의 에그버트나 KAIST 로봇영재가 생기지 않도록 말이다.

참 고 문 헌

- 경향신문 2012. 9. 13일자 인터넷 기사: **지난 해 하루 평균 43.6명 자살... 10년 새 2배.**
 김정아 (2005). **초등정보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비교.**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동아일보 2012. 4. 18일자 1면 기사: KAIST 학생, 전산학과 4학년 스스로 목숨 끊어.

모혜연 (2000). 청소년기 스트레스 요인과 완벽주의 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문경숙 (2006).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7(5), 143-157.

문화일보 2011. 4. 11일자 1면 기사: 실패 모르던 영재들 ‘낮선 좌절’ 자살 부른다.

박병금 (2006).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생태체계요인 탐색.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박병금, 노필순 (2007). 우울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변인: 우울청소년과 비우울청소년의 집단비교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8(8), 168-193.

박소희 (2010).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자아상태와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초등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박재연, 정익중 (2010).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업문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개인수준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32, 69-97.

박진혜 (2011).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이 학급에서 받는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박혜정 (2009). 학업 스트레스, 통제소재, 우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박혜진 (2001). 영재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 심리적 적응, 자아 존중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배병렬 (2009).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송인한, 권세원, 정은혜 (2011). 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3(2), 199-223.

신민섭 (1993). 자살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 도피 척도의 타당화.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1991). 우울증과 충동성이 청소년들의 자살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86-297.

심혜원 (1995). 완벽주의 성향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오미향 (1993).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분석과 그 감소를 위한 명상 훈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우채영, 박아청, 정현희 (2010). 성별 및 학교 급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 24(1), 19-38.

유상미 (2008). 지각된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살사고의 관계: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 애착유형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윤경란 (2006).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자아탄력성의 조절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윤초희, 윤여홍, 김홍원 (2004). 지적으로 우수한 초등영재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

- 학회지: 발달, 17(2), 177-196.**
- 이병환, 김경수 (2009). 중학생의 자살생각과 공격성 및 귀인성향의 관계 분석. **한국열린교육학회, 17(4), 323-342.**
- 이수민, 양난미 (2011).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17-738.**
- 이은숙 (2002).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에 관한 구조모형.**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이외숙 (2005). **초등 영재아가 지각하는 부모의 성취압력 및 교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대처행동.**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이진오 (2008).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자아탄력성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장은선 (2006).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비합리적 신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정영주, 정영숙 (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왜해 및 친구지지 간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 발달, 20(1), 67-88.**
- 정철순, 임숙빈, 고효진 (2001). 청소년의 자살 위험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0(4), 521-532.**
-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회지, 29(4), 943-956.**
- 지은희 (2006). **아동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와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최바울, 고은영, 이소연, 이은지, 서영석 (2011). 부적응적 완벽주의, 무망, 우울, 심리적 극통 및 자살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93-716.**
- 최인재 (2010). 청소년기 자녀의 자살생각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자아존중감 및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회, 17(9), 105-130.**
- 최정웅 (2012). **온라인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과학 영재들의 고민유형 분석.**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최정임 (1998). **완벽주의 성향, 시험 불안, 학업 성취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현진원 (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모형의 분석.** 한국임상심리학회 3월 워크샵 자료집.
- Adderholdt-Eliott, M. (1987). *Perfectionism: What's so bad about being good?*. Minneapolis: Free Spirit Publishing Inc.

- Adkins, K. K., & Parker, W. (1996). Perfectionism and suicidal preoccupation. *Journal of Personality, 64*(2), 529-543.
- Baker, J. A. (1995).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academically talented adolescents. *Gifted Child Quarterly, 39*, 218-233.
- Beevers, C. G., & Miller, I. W. (2004). Perfectionism, cognitive bias, and hopelessness as prospective predictors of suicide ideation.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34*(2), 126-137.
- Berndt, D. J., Kaiser, C. F., & Van Aalst, F. (1982). Depression and self-actualization in gifted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 142-150.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50*, 219-230.
- Clarizio, H. F. (1994). *Assessment and Treatment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Brandon, VT: Clinical Psychology Pub.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rria, J. I.,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4*, 119-126.
- Hamilton, T. K., & Schweitzer, R. D. (2000). The cost of being perfect: perfectionism and suicide ideation in university student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4*(5), 829-835.
- Harmachec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 27-33.
- Hayes, M., & Sloat, R. (1990). Suicide and the gifted adolescent.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13*, 229-244.
- Hewitt, P. L., & Dycx, D. G. (1986). Perfectionism, stres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 research, 10*, 137-142.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s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58-65.
- Hewitt, P. L., Flett, G. L., Turnbull-Donovan, W., & Mikail, S. (1991).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Reliability, validity and psychometric properties in psychiatric

- samples.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 464-468.
- Hollingsworth, L. (1942). *Children above 180 IQ Stanford Binet: Origins and development*. New York: World Book.
- Hollingsworth, L. S. (1975). *Children above 180 IQ*. New York: Arno Press, reprint of the 1942 edition.
- Jackson, P. S., & Peterson, J. (2003). Depressive disorder in highly gifted adolescents. *Journal of Secondary Gifted Education*, 14, 175-186.
- Kaiser, C. F., & Berndt, D. J. (1985). Predictors of loneliness in gifted adolescents. *Gifted Child Quarterly*, 29, 74-77.
- Klerman, G. (1987). Clinical epidemiology of suicid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48, 33-38.
- Neihart, M. (1999). The impact of giftedness on psychological wellbeing: What does the empirical literature say? *Roepers Review*, 22, 278-319.
- Neihart, M. (2000). Gifted Children With Asperger's Syndrome. *The Gifted child quarterly*, 44(4), 222-230.
- Reynold, W. M. (198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ichardson, A. S., Bergen, H. A., Martin, G., Roeger, L., & Alliso, S. (2005). Perceive academic Performance as an indicator of risk of attempted suicide in young adolescents. *Archive of suicide Research*, 9(2), 163-176.
- Rimm, S. B. (1995). *Why bright Kids get poor grades: And what you can do about it*. New York: Crown Publisher, Inc.
- Rubin, C., Rubenstein, J. L., Stechler, G., Heeren, T., Halton, A., Housman, D., Kasten, L. (1992). Depressive affect in "normal" adolescents: Relationship to life stress, family and friend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2, 430-441.
- Silverman, L. K. (1993). *Counseling the gifted and talented*. New York: Love.
- Webb, J. T. (1993). Nurturing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In K. A. Hellen, F. J. Monks, & A. H. Passow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 (pp. 525-538), Pergamon Press.
- Webb, J. T., Meckstroth, E. A., & Tolan, S. S. (1994). *Guiding the Gifted Child: A practical source for parents and teachers*. Ohio Psychology Publication Company.
- Weisse, D. E. (1990). Gifted Adolescents and Suicide. *School Counselor*, 37(5), 351-358.
- Whitemore, J. R. (1980). *Giftedness, conflict and under achievement*. Boston: Allan & Bacon.
- Willings, D., & Arseneault, M. (1986). Attempted suicide and creative promise. *Gifted Education International*, 4(1), 10-13.

= Abstract =

A Study on the Gifted Students' Suicidal Ideation and Relative Variables

Sunhong Jin

University of Incheon

Taeyoun Yang

Gifted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Incheon

Kisoon Han

University of Incheon

This study is to understand gifted students' suicidal ideation and its related variables among gifted students. For this,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of gifted students and suicidal ideation, confirming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academic stress. For the study 320 middle school students who were identified as the gifted at a gifted education center affiliated with the universit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it of measurement model was found to be $\chi^2=228.571$ ($df=110$, $p=.000$), $CFI=.972$, $TLI=.966$, $RMSEA=.058$, indicating most of fit indexes were acceptable. Second, suicidal ideation was foun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maladaptive perfectionism, depression, academic stress.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path coefficient, it was found to be influenced significantly by all of the path from maladaptive perfectionism to depression and academic stress, the path from depression to suicidal ideation, the path from academic stress to suicidal ideation. However, the path from maladaptive perfectionism to suicidal ideation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Fourth, the result showed that depression and academic stress worked as complete mediators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suicidal ideation. These findings give useful information about affective aspects of gifted adolescents in hard circumstances.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be helpful in devising consultation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gifted who are in danger of suicide.

Key Words: Gifted, Maladaptive perfectionism, Depression, Academic stress, Suicidal ideation

1차 원고접수: 2012년 8월 19일
수정원고접수: 2012년 9월 15일
최종게재결정: 2012년 9월 28일